

민주부산의 역사를 새롭게 여는 ———

# 민주공월

수목아 숲아 푸르른 숲아



2023. 여름호

# 169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주부산의 역사를 새롭게 엮는 ———

# 민주공원

## 2023년 여름호 통권 169호

발행처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발행인 이행봉 | 편집인 김중기  
발행일 2023년 7월 18일 | 간별 계간 | 등록일 2005년 4월 12일 | 등록번호 부산증,바00013  
표지 제호 신영복 | 편집장 김에선 편집위원 김도희 박지원 유반야(내부) 김현지 이가영 이지혜 정재운(외부)  
디자인 중간 051-466-8994 |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 19 (우 48901)  
전화 051-790-7400 전송 051-790-7410 누리집 www.demopark.or.kr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SNS로 빠르게 소식을 만나보세요!

- 민주공원 페이스북  
facebook.com/Minjugongwon
- 민주공원 인스타그램  
@democracypark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페이스북  
facebook.com/busanminju
- 카카오톡에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를  
검색하여 친구추가하세요.



## 떠내면서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뒤, 국제연합군과 공산군은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첫 정전회담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과 북한군, 중공인민지원군이 최종적으로 종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으로 남북 간 적대행위는 일시적으로 정지되었지만 전쟁상태는 계속되는 국지적 휴전상태에 들어갔고, 남북한 사이에는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이 설치되었습니다. 2023년, 정전협정 70년인 올해, 이토록 긴 시간 동안 정전협정

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는 한반도가 유일합니다.

정전협정을 종전협정,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해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여러 전문가의 글을 소식지에 모아보았습니다. 한반도 분단 70년의 의미와 한반도 평화와 주변국과의 관계, 평화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도 일상의 평화라는 관점에서 다루어보았습니다.

10여 년 만에 폭우로 실내에서 진행한 2023 민주공원 어린이날 놀이터와 '한뜻으로 민주주의'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과 함께한 5·18민주항쟁 43주년 부산기념행사, 6월민주항쟁 36주년 부산기념행사를 지면에 펼쳐 보입니다. 봄을 지나 여름을 맞아 민주공원 곳곳을 색색으로 물들이고 있는 풀, 꽃, 나무의 모습도 담았습니다. 5·18민주항쟁 43주년 부산기념식에서 5·18민주항쟁, 세월호참사, 10.29이태원참사의 유족들은 '우리는 서로의 연대이자 위로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을 만들고 우리의 일상을,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했습니다. 장맛비와 무더위 사이에 보내드리는 여름호를 보며 '함께'의 힘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 목 차

- 04
**4대항쟁** 5·18민주항쟁 43주년 부산기념행사  
 6월민주항쟁 36주년 부산기념행사
- 10
**민주공원** 부산민주역사길 스토리투어 ⑥ - 서구·사하구 길 \_정다솜  
 비가 와도, 2023 어린이날 민주공원 놀이터!  
 민주공원 길라잡이 ② 휴식과 공존의 들꽃나무들
- 18
**주 제** 정전협정 70주년 특별전 <깊은 전선, 떨리는 전장>  
 “정전협정 70년에 한반도 평화를 돌아본다” \_이수훈  
 분단 70년과 한반도 평화 \_김준형  
 윤석열 외교 1년과 한반도 위기의 고조:  
 정전협정 70주년의 한반도 현실 \_남기정  
 장벽을 넘는 외교적 상상력 \_김승윤  
 기후위기 최전선의 우리, 기후정의를 위해 함께 싸우자 \_강연주
- 36
**기억에서 기록으로** 기억에서 기록으로 시민의 기억 저장소 \_박지원
- 38
**민주사랑방**
- 40
**민주알림방**
- 40
**생각, 한 컷** \_쁘리아 김



# 5.18

## 5·18민중항쟁 43주년 부산기념식

5월 18일(목)  
오후 7시 30분부터  
부산민주공원 큰방(중  
극장)에서 5·18민중항쟁  
43주년 부산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부산민주주의행동'오월에서유월로'추진위원회의 슬로건인 '한뜻으로, 민주주의!'라는 주제 아래 5·18민중항쟁과 세월호참사, 10·29이태원참사를 관통하는 국가폭력과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세력, 피해자와 생존자, 사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의 악순환을 끊고자 연대하는 마음을 모으기 위해 한데 모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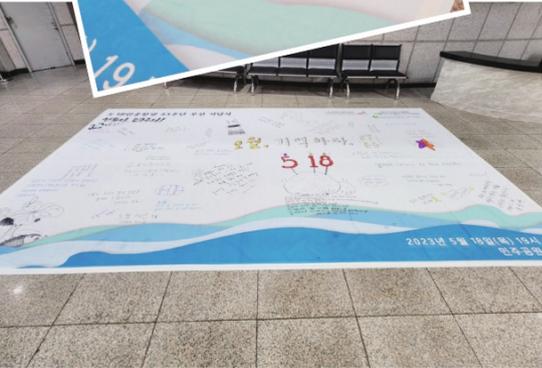
〈임을 위한 행진곡〉 플룻 연주에 맞춰 김남주 시인의 육성으로 그의 시 『학살』을 듣고 김종기 민주공원 관장이 5·18민중항쟁의 경과보고를 했습니다. 이행봉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이들이 5·18민중항쟁을 비롯한 국가폭력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5·18정신을 부정하고 잊게 하려는 책동이 여전하지만 피와 땀으로 맺어진 우리의 연대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국가폭력과 마찬가지로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뜻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하는 몸짓 공연에 이어 5·18민중항쟁, 세월호참사, 10·29이태원참사 유족의 인터뷰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위로이자 연대가 되었다”라는 말을 되새겼습니다. 이어 5·18민중항쟁 유족과 10·29이태원참사 유족이 함께 무대에 올라 “우리의 연결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연대의 큰 힘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월에서유월로 청년 서포터즈와 함께, 또 기념식에 참석한 모든 시민들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5·18민중항쟁 43주년 부산기념식을 마쳤습니다. 함께 부른 〈임을 위한 행진곡〉과 유족 인터뷰 영상은 민주공원 유튜브 채널과 SN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에는 보통의 종이 방명록이 아닌 특별한 방명록을 준비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리거나 신발을 벗고 앉아서 쓸 수 있는 현수막을 깔아 두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성 있는 글과 그림을 남겨주셨습니다. 📖





# 6.10

## 6월민주항쟁 36주년 부산기념행사

### 6월민주항쟁 36주년 부산기념식과 시민참여 부스

지난 6월 10일(토), 6월민주항쟁 36주년 부산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오후 2시부터 송상현 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참여 부스를 열어 오가는 시민들과 함께 부산지역의 실천적 민주주의 의제를 고민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도 해보았습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부산여성단체연합,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고리2호기반대본부, 루트갤러리, 스타일정글협동조합, 아이들의 체험, 부산공공성연대가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4시부터 6월항쟁 36주년 부산기념식을 시작했습니다. 박종철 합창단이 <아침이슬>과 <민중의노래>를 부르며 식을 시작했습니다. 독재정권은 물론 1987년 이후에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순간마다 시민들이 힘을 모

아 함께했음을 곱씹어보는 주제영상 상영이 이어졌습니다. 부산민예총의 기념공연도 무대 위에 펼쳐졌습니다.

기념식 후 송상현광장에서 서면까지 행진하는 재현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1987년 6월, 그때처럼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만장을 들고, 어깨띠를 매고, 일하다 입고 나온 넥타이부대며 헬멧을 쓴 노동자들, 청년들이 2023년 6월 10일에 부산의 중심을 걸었습니다. '한뎀으로, 민주주의'를 외쳤던 여름날이었습니다.





## 6월민주항쟁 36주년 기념 부산특별전 <6월의 열사 민주공원에 오다>

박종철, 황보영국, 이한열, 이태춘 열사의 유품 10점을 전시하는 6월민주항쟁 36주년 기념 부산특별전 <6월의 열사 민주공원에 오다>는 6월 8일(목)부터 7월 2일(일)까지 민주공원 늘펼쳐보임방(상설전시실)에서 펼쳐집니다. 전시의 개막식을 6월 8일 오전 11시 30분에 열었습니다.

개막식에는 열사의 유족인 이태춘 열사의 어머니 박영옥 님, 황보영국 열사의 아버지 황보문수 님, 동생 황보순익 님, 박종철 열사의 형 박종부님, 고모 박정애 님과 송기인, 문정수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명예이사장, 이행봉 이사장, 김중기 민주공원 관장, 안승운 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이사장과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민주공원 늘펼쳐보임방 입구에서 호국영령과 민주열사에 참배하고 열사의 유족의 유품을 직접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종철 열사의 손목시계, 머플러, 자필 옥중편지(사본)과 황보영국 열사의 벽시계, 황보영국 열사의 분신 소식이 실린 <민주시민> 13호,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피격당할 때 입고 있던 연세대학교 경영학

과 티셔츠(복제본), 동아리 <만화사랑> 날적이 자필 글, 이태춘 열사의 성서와 운전면허증, 자필 이력서, 열사의 사망 소식을 알린 <민주부산> 호의 (복사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태춘 열사의 어머니 박영옥 님은 열사의 유품 앞에서 “그렇게 민주화, 민주화 하더니 이렇게 민주공원에 와 있구나...” 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박종철 열사의 형 박종부 님도 귀엽던 막내의 유품을 보며 생생한 기억을 떠올리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더욱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황보영국 열사의 동생 황보순익 님은 형을 ‘열사’라 부르며 남긴 유품이 거의 없어 열사가 선물 받은 시계를 유족이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시계를 잘 관리하였고 열사는 떠났지만 시계는 여전히 작동하는 것이 감사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이행봉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손목시계, 티셔츠, 벽시계, 성서... 평범한 물건 같지만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흔적들입니다. 네 분 열사가 남긴 유품에서 열사의 정신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사의 유품을 소중히 간직해오시고 시민들께 내어주신 유족분들께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흔쾌히 도움을 주신 박종철 기념사업회와 이한열 기념사업회에도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6월민주항쟁 36주년 기념 전시 <민중미술 2023 – 입 속의 검은 입>

### 섹션 ① <민중미술가열전Ⅶ 남궁산>

6월민주항쟁 36주년 기념하며 매년 여는 <민중미술>전의 올해 주제는 '입 속의 검은 입'입니다. 첫 번째 섹션인 <민중미술가열전Ⅶ 남궁산>이 6월10일(토)부터 7월 23일(일)까지 민주공원 잡은펼쳐보임방(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6월 10일에는 남궁산 작가와 함께하는 판화 체험도 열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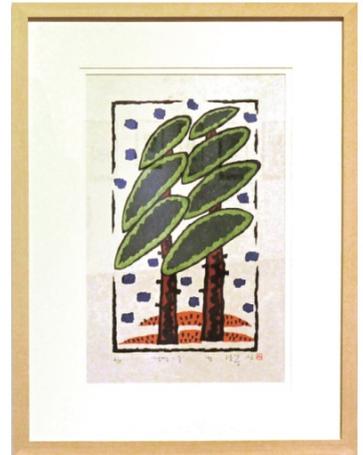
해마다 열린던 '민중미술가열전'은 한 해를 걸러 올해 다시 시민들과 만납니다. 앞서 홍성담, 박불뚱, 노원희,故 양호규, 박경효, 이인철 여섯 분의 작가를 열전 마당에 불러내었습니다. 올해는 '큐트 민중미술', '팬시 민중미술'의 세계를 연 남궁산 작가를 모셨습니다. 민중미술과 생활미술 사이에서 사람들과 함께 노니며 한국적 장서표를 고안해 미술과 문학 사이의 다리를 놓기도 한 작가의 작품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소장하고 있는 남궁산 작가의 작품 34점과 더불어 작가 소장작품 중 생명 판화 연작 20점, 장서표 44점이 한 공간에서 시민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을 휴관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와 4시에 큐레이터 전시해설도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 섹션 ② <민중미술의 현장 / 식민지구 2023 – 먹힐 듯 말 듯>

두 번째 섹션인 <민중미술의 현장 / 식민지구 2023 – 먹힐 듯 말 듯>은 지속불가능한 자본주의, 식인 자본주의를 통과하는 지구 예술가들의 발화로 8월 5일(토)부터 8월 27일(일)까지 민주공원 잡은펼쳐보임방(기획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섹션 1과 동일하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와 4시에 큐레이터 전시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민중미술 2023 – 입 속의 검은 입>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주최하며 민주공원, 부산민예총 시 각예술위원회, 한국민족미술인협회 울산지회, 한국민족미술인협회 광주지회가 공동주관합니다.



## 6월민주항쟁 36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대안적 민주주의의 모색과 마을공동체>

6월민주항쟁 36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대안적 민주주의의 모색과 마을공동체>가 6월 29일(목) 오후 1시부터 노무현재단부산지역위원회에서 열렸습니다. 민주주의사회연구소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로 '민주주의의 위기와 공동체주의'를 발제했으며, 조형근 소설평 접경지대 소장이 '민주주의의 위기와 공동체주의 - 다른 이야기와 어떻게 섞일 수 있을까?', 차철욱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소장이 '아미동 비석마를 주민의 생활경험과 마을만들기', 신아영 마을기록가가 '마을공동체와 청년들', 이경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공동대표가 '마을공동체의 성장과 주민 삶의 변화 - 성미산 마을을 중심으로'를 발표했습니다.

김주환 동아대 기초교양대학 교수, 차윤정 부산대 교양교육원 원장, 김부련 문화공간 알베르게 금곡 대표, 이형주 부산마을교육공동체 민간합의체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 김중기 민주공원 관장을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시간	내용
13:00-13:10	1. 기조발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민주주의의 위기와 공동체주의'
13:10-13:30	2. 주제발제: 차철욱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소장 '아미동 비석마를 주민의 생활경험과 마을만들기'
13:30-14:30	3. 이야기: 신아영 마을기록가 '마을공동체와 청년들', 이경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공동대표 '마을공동체의 성장과 주민 삶의 변화 - 성미산 마을을 중심으로'
14:30-14:45	4. 휴식
14:45-15:30	5. 종합토론: 김부련 문화공간 알베르게 금곡 대표, 이형주 부산마을교육공동체 민간합의체 대표, 차윤정 부산대 교양교육원 원장, 김주환 동아대 기초교양대학 교수
15:30-16:00	6. 종합토론: 김중기 민주공원 관장
16:00-16:45	7. 종합토론: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차윤정 부산대 교양교육원 원장, 김부련 문화공간 알베르게 금곡 대표, 이형주 부산마을교육공동체 민간합의체 대표
16:45-17:30	8. 휴식
17:30-18:00	9. 종합토론: 김중기 민주공원 관장

## 부산민주역사길 스토리투어 ⑥ - 서구·사하구 길

# 뜨거운 의지로 다져온 길

정다솜 | 부산민주공원 문화예술교육

### 동아대학교 구덕캠퍼스

▶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32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의 굴욕적인 한일회담에 반대하며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났던 6·3항쟁 시기 부산에서도 한일회담 반대운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남도청, 부산시청과 가까운 곳에 위치했던 동아대학교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1979년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 당시에도 동아대학교 학생들은 오전에는 교내에서, 오후에는 광복동과 남포동에서 시위에 대거 참여하여 민주화운동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 구덕운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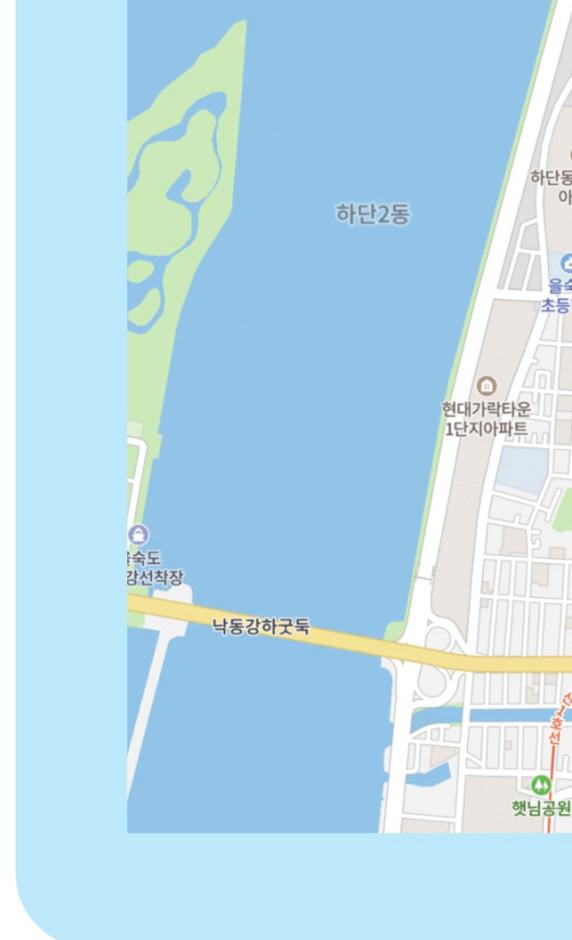
▶ 부산광역시 서구 망양로 57

1928년 부산 최초 공설운동장으로 건립된 구덕운동장은 1940년 11월 23일 부산항일학생의거가 일어났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당시 구덕운동장에서 개최된 대회에 참가한 동래중학교(현 동래고등학교), 부산제2상업학교(현 개성고등학교) 학생들은 일제의 민족적 차별에 항거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한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6·3항쟁 과정에서도 청년 학생들과 시민들은 이곳에 모여 격렬한 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 석당박물관(옛 경상남도청)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에 위치한 석당박물관 건물은 과거 경상남도청, 임시수도정부청사, 부산지방검찰청 청사로 사용되며 부산근현대사와 함께하였습니다. 경상남도청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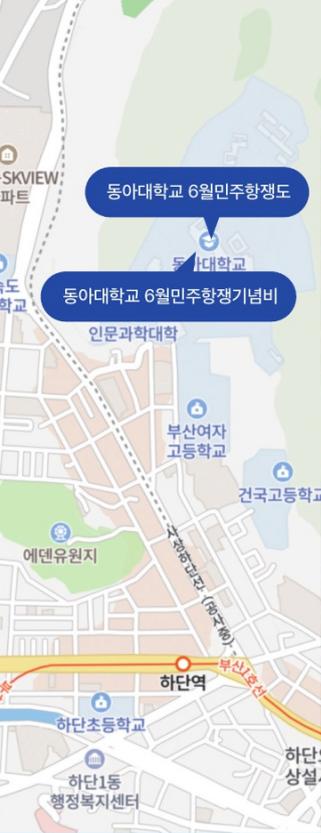
로 사용되었던 1960년대에서 1970년대는 4·19혁명, 6·3항쟁, 부마민주항쟁과 같은 부산의 민주화운동이 이어졌던 시기로 당시 수많은 시민들이 이곳으로 몰려와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 동아대학교 6월민주항쟁도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과거 동아대학교 학생들은 6월민주항쟁 과정에서 희생된 이태춘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승학캠퍼스 교내에 30m에 이르는 대형 벽화를 그렸습니다. 동아대학교 졸업생으로 1980년대 당시 태광고무 근로자였던 이태춘 열사는 퇴근 후 매일같이 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1987년 6월 18일 최루탄 추방의 날, 거리를 행진하며 시위를 하던 그는 자성고가교 부근을 지날 때 경찰이 난사한 최루탄을 맞고 추락하며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현재는 담쟁이덩굴로 대부분 가려져 있고 떨어져 나간 부분도 많지만 동아대학교 벽 한구석에는 여전히 '부활하는 이태춘'의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 ◀ 사진 위에서부터  
 동아대학교 구덕캠퍼스  
 구덕운동장  
 석당박물관(옛 경상남도청)  
 동아대학교 6월민주항쟁도  
 동아대학교 6월민주항쟁기념비

※ 가이디드 투어

### 동아대학교 6월민주항쟁기념비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부산민주화운동에 함께하였던 학생 열사들을 기리기 위해 2007년 6월 9일 동아대학교 동문들이 모금을 하여 6월민주항쟁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불꽃 형태의 기념비는 뜨거운 항쟁을, 불꽃 사이에 새겨진 작은 물고기 문양은 평범한 시민들의 의지와 연대를 상징합니다. 🐟

# 비가 와도, 2023 어린이날 민주공원 놀이터!

어린이날을 앞두고 많은 비가 예상되어 민주공원에서는 비상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취소하는 가운데 어린이날 민주공원 놀이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규모를 축소하여 민주항쟁기념관 실내에서 열기로 하고 어린이들을 기다렸습니다. 비바람이 치는 날에도 많은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민주공원을 찾아주셨습니다. 3,000여 명이 다녀간 <2023 어린이날 민주공원 놀이터>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많은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어린이날 민주공원의 모습을 지면에 펼쳐보입니다.

## 민주항쟁기념관 내 (※ 임시주차장 ~ 민주공원 간 셔틀버스를 운행)

- ♣ 지하 1층  
푸드트럭 2대 운영
- ♣ 1층 로비  
미아방지팔찌 부착, 운영부스,  
체험부스(평화 네컷 사진 촬영,  
평화여행 스크래치 엽서 만들기 등),
- ♣ 큰방, 작은방(중극장, 소극장)  
인형극, 뮤지컬, 폐막 공연
- ♣ 2층 늘펼쳐보임방(상설전시실)  
회원부스, 풍선 나누기,  
민주공원 부채 만들기
- ♣ 2층 로비  
체험부스(페이스페인팅,  
팔랑팔랑 요술나비 등)
- ♣ 3층 로비  
체험부스(제기차기, 점자 쓰기 등)
- ♣ 잠은펼쳐보임방(기획전시실)  
정전협정 70주년 특별전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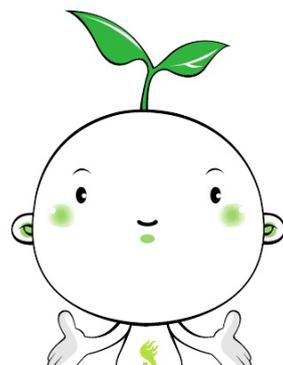
민주항쟁기념관 곳곳에서 어린이들은 다양한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투명한 부채를 내 마음대로 꾸며보기도 하고 '유퀴즈 인 더 민주공원'으로 민주공원과 관련된 O, X 퀴즈를 풀어봅니다. 얼굴이나 손에 페이스페인팅을 하기도 하고 해양생물들 사이에서 플라스틱, 병뚜껑 같은 쓰레기를 건져보기도 합니다. 내 이름을 점자로 적은 명함도 만들어봅니다.

작은방(소극장)에서는 인형극 <수상한 과자가게> 공연을, 큰방(중극장)에서는 극단 더블스테이지의 <개구리네 한술밥> 공연을 하고 이어 3시 30분부터 폐막 공연을 펼칩니다. 스텝아트컴퍼니의 공연에 이어 터팅도 배웠습니다. 춤추고 싶은 어린이들이 무대로 올라가 춤을 이어 주는 게임을 하기도 하고 댄스 배틀도 벌였습니다.

<2023년 어린이날 민주공원 놀이터> 체험부스에서 어린이들이 그리고 만든 것들의 모습은 모두 다릅니다. 앞사람의 춤을 똑같이 추어야 하는 게임 규칙에도 어린이들은 제각각의 춤을 춥니다. 춤을 추겠다고 무대에 올라왔지만 또 춤을 추지 않겠다고 하여 무대에 앉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존중 받을 수 있는 날이 어린이날뿐만 아니라 매일이 되길 바랍니다.

비바람이 치는 날씨에도 민주공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내년 어린이날에도 만나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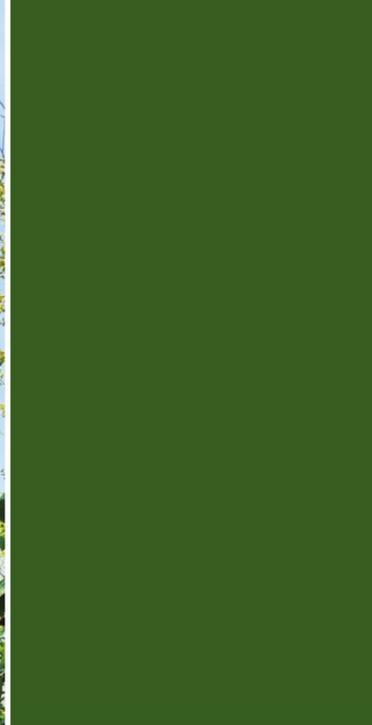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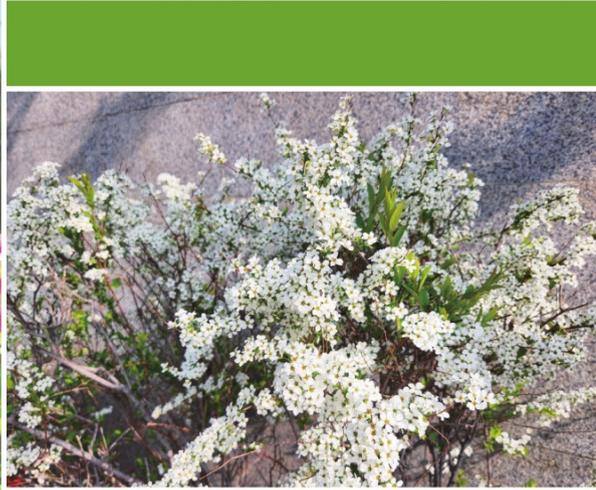
민주공원 길라잡이 ②

휴식과 공존의 들꽃나무들



'민주공원'이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듯 민주공원은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인 동시에 시민의 휴식처인 공원이기도 합니다. 민주공원에 처음 방문하는 분들도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잔디밭과 그늘을 만들어주는 아름답리 나무, 색색의 꽃을 보고 '도심 속에 이런 공간이 있다니!' 하고 놀라곤 하지요. 민주공원의 사계절은 민주공원 곳곳에 있는 풀꽃, 나무와 함께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땅에서 솟아나는 새싹을 보면서 봄이 오는 것을 느끼고, 꽃이 피고 지고 나뭇잎이 색이 바뀌고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계절의 순환을 체감합니다.

민주공원 길라잡이 두 번째 테마는 '들꽃나무들'입니다. 민주항쟁기념관 3층과 만나는 공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봄기운을 머금고 움트는 싹부터 만개한 꽃까지 민주공원 곳곳에서 공존하고 있는 풀, 들꽃, 나무가 만들어주는 휴식을 지면으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





# 정전협정 70주년 특별전 <깊은 전선, 펄럭이는 전장>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여는 특별전 <깊은 전선, 펄럭이는 전장>이 4월 15일(토)부터 5월 21일(일)까지 부산민주공원 잡은펼쳐보임방(기획전시실)에서 열렸습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이끄는 예술실천으로서 반전, 평화, 인권, 통일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주최, 민주공원이 주관,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이 후원했습니다. 김경화(설치), 여상희(설치), 이동근(사진), 전승일(애니메이션), 정만영(사운드설치), 정재운(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가 함께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을 다시 바라보는 아카이브 전시로서 노근리학살사건, 보도연맹학살사건 등의 민간인학살, 제노사이드 그리고 정전협정을 다루었습니다.

김경화 작가는 부산 사하구 동매산 학살 아카이브 아트 설치 작업을, 여상희 작가는 제노사이드 비석 설치, 민통선 철조망, 철모 설치 작업을, 이동근 작가는 탈북 공연단원의 두만강 여행과 비전향장기수 안학섭의 다큐 영상을, 전승일 작가는 애니메이션 '금강굴이야기'와 제노사이드 연작 영상을, 정만영 작가는 70년을 관통해서 남은 깃발의 이미지와 소리 혼합 설치 작업을, 정재운 작가는 보도연맹 관련 단편소설 1편과 이를 전시공간에서 시각적 형상화한 작업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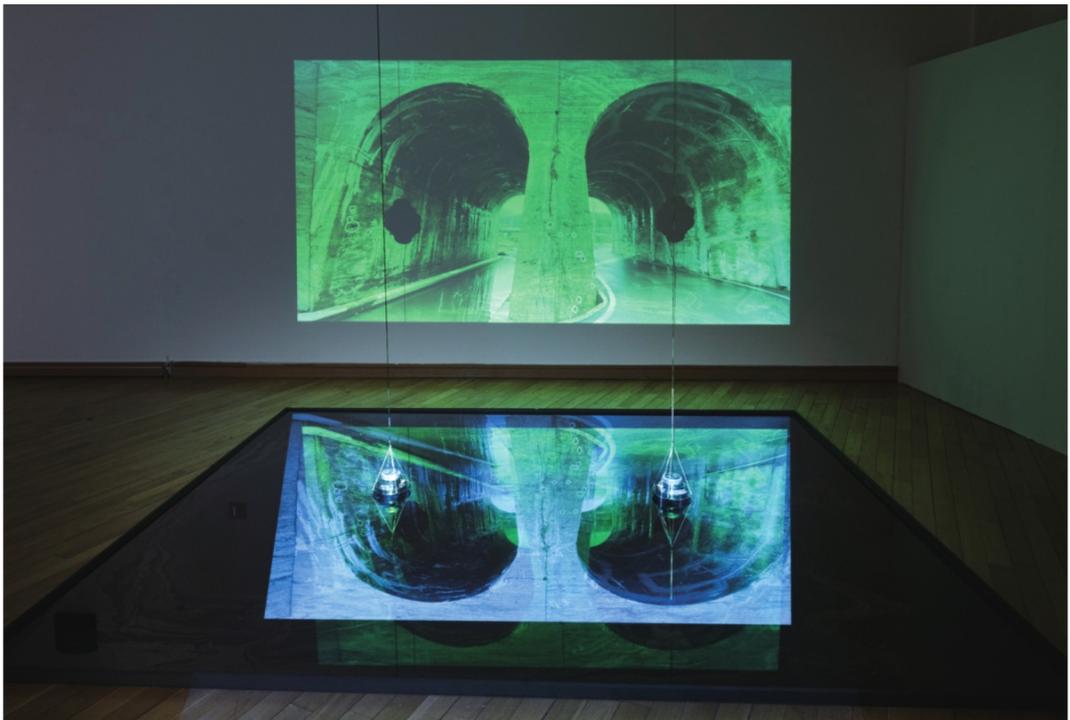
전시 기획한 신용철 민주공원 학예실장은 "정전은 전쟁을 멈춘 것이다. 우리 전쟁을 멈춘 지 70년이 되었다. 전쟁을 끝냈다는 종전선언을 하려면 평화협정이라는 다리를 건너야 한다. 우리 발걸음은 평화협정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전협정 70주년에 우리는 반전, 평화, 인권의 문제를 뼈저리게 묻는다."라며 전시 기획 의도를 말했습니다.

전시의 제목인 <깊은 전선, 펄럭이는 전장>에서 '깊은 전선'은 좌우 이념 대립이 깊은 구조를 뜻합니다. '펄럭이는 전장'은 현재까지 이어지는 자장을 뜻합니다. 자장 안에서 언제나 제노사이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시는 '아카이브 아트(Archival Art)'로 기록을 바탕으로 기억의 회로를 들여다 듣게 하는 작업입니다. 아카이브 아트는 구조를 해부하고 현장을 성찰하는 사회미학적 발화로 참여작가들은 현장답사와 스터디, 워크숍을 바탕으로 제노사이드의 기록을 넘어 기억의 회로를 밝히는 작업을 했습니다. 아카이브는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한국전쟁 초기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아카이브'와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노근리 사건 아카이브'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동근\_마주보는 땅\_3채널 영상\_26min 15sec\_2023



정만영\_시간은 흐르고 깃발만 남는다\_사운드, 영상, 설치\_2023



여상희\_그들과 그들\_신문지로 만든 비석 외 수집품\_2023



여상희\_그들과 그들\_부분



김경화\_무명꽃을 입은 사람들\_엄색천\_2023



전승일\_금정굴 이야기 Korean GENOCIDE\_18min 36sec\_다큐애니\_2002, 제노사이드 연작\_2min\_영상\_2023

# “정전협정 70년에 한반도 평화를 돌아본다”

이수훈 | 前 주일대사, 경남대 석좌교수



◀ 1953년 7월 휴전협정을 조인하는 유엔군 사령관과 북한 측 대표  
▲ 38선 정전 반대 국민 총궐기대회의 모습

너무나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한국전쟁은 아직도 휴전상태일 뿐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았다. 1953년 여름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전쟁도 아니고 진정한 평화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계속되어 70년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달리 말하자면 우리 민족이 정전협정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로 대체해야 할 큰 숙제를 풀지 못하고 오랜 세월을 살아온 셈이 된다. 이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현재 한반도를 짓누르고 있는 적대와 대결, 군사적 긴장과 또 하나의 전쟁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당연히 평화공존을 통한 통일의 돌파구를 연다는 과제는 너무나 아득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에게 사활적 외교구도는 남과 북, 미중일러로 구성되는 동북아6자틀이다. 오늘날 한국의 국력이 강해지고 세계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층 더 넓은 외교지평을 안목에 넣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중견국외교를 주장하는 데도 일리가 있고,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겠다는 포부에도 시비를 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게 있어 안보, 평화, 전쟁 같은 사활적 이슈들이 결정되는 구도는 동북아6자틀이다.

2002년 북한 우리농농축 핵문제가 발발했을 때, 즉 이른바 ‘제2차 북핵위기’가 터졌을 때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는 6자회담이 만들어졌다. 6자회담은 2005년 ‘9.19공동성명’을 비롯하여 여러 합의를 만들어내고 비핵화의 거의 최종단계까지 진전을 이룬 사실을 상기할 만하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동북아구도를 어떻게 지혜롭게 관리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 비핵평화를 위해 활용하느냐에 있다. 그러나 지금 동북

아 정세는 소위 '신냉전'이라는 새로운 분단구도를 형성해가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통한 점진적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최악의 사태로 퇴행해가고 있는 꼴이다. 실로 우려스러운 일은 한국이 '신냉전'의 한 축인 한미일3각축의 선봉에 서서 북중러와 적대적, 대결적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북한은 북중러3각축의 선봉에 서지 않을 수 없기에 동북아 지역 차원의 '신냉전적' 정세가 한반도에서 가장 선명한 분단선을 구축해가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염두에 둔다면 대한민국에게 있어 동북아외교의 출발은 남북관계가 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이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맹에 올인해 버리는 순간 한중관계를 비롯한 여타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없다. 특히나 남북관계를 놓아버리는 결과를 야기하고 한반도 비핵평화를 추구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린다.

윤석열정부를 위시하여 역대 보수정권들은 한결같이 한미동맹을 앞세워 동북아외교를 구사했는데, 대체로 남북관계의 파탄으로 귀결되었다. 한미동맹은 하나의 수단인데 그것을 절대가치로 여기고 목적으로 삼아 동북아외교를 구사해서는 동북아외교를 자체가 크게 뒤틀리게 마련이다. 현 정부는 유달리 한미동맹 강화에 목숨을 걸다시피하고 있는데 패착이다. 너무 늦기 전에 한중관계에도 관심을 두어야 하고 무엇보다 남북관계라는 끈을 다시 쥐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어떻게 되나? 보수진영에서는 2022년 대선 전부터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마치 내일이라도 할 것처럼 떠들어댔다. 그리고 대선에서 이겨 정권을 잡은 후에도 북한 핵실험 얘기를 계속했다. 핵위협이 무척 강조되었다. 결국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없었다. 추가 핵실험에 대한 경고로만 일관한 미국의 바이든행정부마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 바이든행정부의 대북정책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 그러나 바이든정부가 그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없다.

오직 북핵위협을 구실로 삼아 자신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을 한미동맹의 틀에다 묶어두고 한미일3각협력의 틀에 엮어매는 데 충실하였을 뿐이다. 한국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3각협력에 일로매진하였던 탓에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너무나 손쉽게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를 이루

게 되었다.

미중패권경쟁의 와중에 일본과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을 엮어 대중견제정책의 파트너로 삼는다는 목표에 더해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건 외교목표가 "중산층을 위한 외교"였는데, 그것은 동맹국들을 끌어들이 미국 중산층 일자 리창출 프로젝트를 진척시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었다. 우리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미국으로 유도하여 이 프로젝트를 완결시키는가 하면 중국과의 연결을 끊으려는 정책을 구사하여 우리 핵심산업들에 큰 낭패를 야기하고 있다. 가치를 앞세우다가 국익이 실종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와 집권당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전임정부 탓을 예사로 한다. 전임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노력의 성과들을 모두 '위장평화'라 하고, 남북정상 회담이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마저 '위장평화쇼'라 부른다. "사기"라 부르기도 한다. 6.25전쟁을 일단 끝내고 보자는 종전선언을 향한 전임정부의 몸부림도 모두 위장평화고 사기라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포용정책이나 6.15남북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번영정책이나 10.4정상회담 시절에는 "퍼주기"라 비난을 해댔는데, 전임정부에서는 아무 것도 준 것이 없으니 퍼주기라 할 수는 없고 시정잡배나 입에 올릴 "사기쳤다"는 것이다.

우리 민족이 분단체제 아래 70년을 살았다. 대선 때마다 북한과 관련된 이슈로 비생산적인 논쟁을 벌인 나머지 승패가 결판나는 현실을 비롯하여 사소한 인권문제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는 분단체제의 질곡이 너무나 깊다. 북한은 북한대로 망가져서 국가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실패국가가 된지 오래다. 남북이 어우러져 분단체제가 작동한지 너무 긴 시간이 지났다. "퍼주기"니 "위장평화"니 하는 말들도 분단체제의 산물이고 그 체제 아래서 위력을 발휘하고 정치적 효과를 본다.

자유와 법치가 보편적 가치라면 평화도 그들에 못지않은 보편적 가치이자 국제규범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희망을 가질 데라고는 그래도 시민이며, 시민의 평화역량이다. 우리 각자가 되도록 평화를 생각하고 평화를 키우는 노력을 기울이는 길밖에 없다. 정전체제 100주년을 맞는 비극이 없도록 마음을 다잡을 일이다. 

## 분단 70년과 한반도 평화

김준형 | 한동대 교수(국제정치)

엄격하게 말하자면 한반도의 분단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었지만 이를 또렷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드물다. 첫 번째 분단은 2차대전 직후 연합국의 일방적 합의로 38선이 그어졌으며, 남북한에 각각 미·소 군정이 실시되었다. 두 번째 분단은 한국전쟁의 결과로 초래된 휴전선인데, 38선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선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 분단의 기원을 후자에만 둔다. 미국의 책임을 가리고, 전쟁의 나라에서 절반이라도 구한 구원자의 은공만 부각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 민족의 친형인 분단은 강대국 논리에 의해 강제된 것이었으며, 그 분단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향후 강대국의 패권 갈등이 부활하고, 다시 한반도에 전가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전후처리 방식은 유럽(독일)과 아시아(일본)가 매우 달랐다. 유럽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를 통해 독일의 재무장을 막는 동시에 공산주의의 위협을 방어한다는 ‘이중 봉쇄’를 채택했으며, 전쟁 피해 당사국들의 철저한 과거청산 요구를 미국이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그러나 아시아의 전후처리는 미국이 앞장서 과거청산을 축소 또는 면제했으며, 독일을 분단시키는 수준에 해당하는 대일본 약화 정책도 없었다. 전범재판 역시 뉘른베르크 재판과는 달리 도쿄재판은 전쟁의 뒤처리만 집중했으며, 일본 전범들의 철저한 단죄와 아시아인들의 피해는 주변으로 밀려났다.

미국은 자국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구축하는 것에만 골몰하였는데, 미국이 동북아에 구축한 체제는 남방 3각 동맹과 북방 3각 동맹의 대립 구도였다. 남방에서는 미국을 축으로 1951년 9월 미일안전보장조약과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유사 3각을, 북방에서는 북한을 축으로 1961년 조·소 우호조약과 조·중 우호조약을 역시 따로 체결해 유사 3각 동맹체제를 구축했다. 1990년대 초 냉전 붕괴로 인한 북방의 위협이 현저히 감소했음에도 북미의 적대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던 것이 진영대결이 시작된 핵심 이유였다. 즉, 동서독의 분단이 해소되고 통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중심축인 미소 적대관계가 소련의 붕괴로 가능했지만, 한반도는 북방 3각의 중심인 북한과 남방 3각의 중심인 미국 사이의 적대관계 해소가 없었기에 계속 유지되어왔다. 한국과 중러 관계의 개선으로 진영대결은 약화했으나 북미의 적대관계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방해했다.

해제되지 않은 진영대결 구도는 최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로 부활하는 양상이다. 미국은 한-미-일 3국의 ‘유사 동맹의 실질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중국봉쇄라는 미국의 전략적 필요를 위해 일본의 재무장을 묵인 또는 방조함으로써 군사 및 경제적 동원을 극대화하려 한다. 미국이 3각 군사협력을 구체화한 것은 2012년부터였으며, 공교롭게도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외교를 관장했던 인물이 바 이든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를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이후 일본 우경화에 대한 우리 국민감정이 악화하면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미국이 적극적으로 한일관계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되살아났다. 그리고 결국 박근혜



정부는 국정농단에 휩싸이는 가운데서도 지소미아와 위안부합의를 체결한다. 미국은 지소미아-상호군수 지원협정(ACSA)-지역 미사일방어체제의 3단계가 한미일 군사동맹의 실질화 과정이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이 전략의 가장 큰 장애물이 한일관계 악화라고 본다. 처음에는 아베의 반역사적 행동을 비판하는 분위기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국의 전략적 필요가 더 중요시되면서 태도가 달라졌다. 미국의 세계 전략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공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군사협력을 방해하는 우경화나 역사 왜곡에 대한 비판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시간이 갈수록 일본이 충분히 노력과 성의를 보였다는 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미국으로서는 한일의 역사대립은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피해야 할 일인 것이다.

21세기는 지구적 협력과 통합의 질서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국가 간 파편화와 대결의 질서가 거대

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패권 갈등에 의한 지정학적 위협은 인류의 파괴적 내일을 초래할 수 있다. 힘의 약화로 편협해진 미국과 준비되지 않은 도전국 중국이 초래하는 반평화적 갈등은 깊어지고, 세계는 배타적 민족주의에 매달리는 강경 지도자들의 적대적 공존이 만연해 있다. 미국에서는 누가 더 중국에 대해 강경한지가 권력 획득의 필수 덕목이 되고, 중국은 미국에 대해 얼마나 강하게 저항하느냐로 국민을 결집하고 있다. 한국에서 북한을 때려 부수고, 멸공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면 북한의 군부는 남쪽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며, 핵무기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근거로 삼는다. 이른바 적대적 공존이다. 우리에게 가장 나쁜 상황이 바로 미국과 중국의 적대관계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남북까지 대결적 긴장이 심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중-러와 한-미-일의 진영 대결구조가 되살아날 것이고,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담 참여와 친미 및 친일 노선은 이를 강화하는 행보로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대책이자 해법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먼저 미·중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남북관계의 안정화와 공존은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남북의 적대감이 감소해야 그만큼 미·중이 전략경쟁에 있어 한반도의 이용할 여지가 적어진다.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면 한국이 한미동맹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부담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해야 하는 필요가 적어질 것이다. 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역시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는 힘들다. 통일하면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통일이 쉽지 않다. 같은 민족이니 통일의 필연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젊은 세대에게 강요할 수 없다. 평화가 전쟁보다 얼마나 좋은지와 통일이 분단보다 얼마나 더 좋은지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미·중 전략경쟁의 판에서 배타적 선택의 프레임에 빠져들지 말고, 유사한 입장과 능력을 지닌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미·중 대결구조를 완충해야 한다. 미·중 대결구조가 아무리 결정적 변수라고 하더라도 프레임 안에 갇혀 수동적인 선택만을 고집하는 외교로는 미래가 없다. 한국이 원하는 나라, 한국을 원하는 나라들이 연대를 구축해서 제3의 지대를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 유럽이 가장 매력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지금처럼 진영 외교로의 편승은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기에 피해야 한다. 미·중이 아시아에서 격돌하면서 유럽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전략적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중 대결구조에서 치러야 할 비중은 커지면서, 외교의 중심 무대에서 벗어남으로써 이익은 작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영·미동맹을 우선하면서 상대적으로 대륙의 독일이나 프랑스 등 지역 핵심 강국이 소외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과 정치·경제적 연대를 맺는다면 힘은 배가될 수 있다. 유럽과 함께 인도, 캐나다, 호주, 아세안 등도 동참시킨다면 제3의 지대는 더 큰 힘을 보유했을 수 있고,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미·중 및 미·러 관계가 악화하면서 인류 공동의 과제인 평화, 기후변화, 팬데믹, 핵 확산 등에 대한 협력이 사라지고, 제3세계에 대한 원조가 후 순위로 밀려나면서 세계의 불안정성이 커지는데, 제3의 지대가 공백을 메울 수 있다.

1953년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정전체제가 시작되었고, 뒤따라 분단 구조에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맺었다. 정전체제와 한미동맹이 모두 70년이 되는 해이다. 두 가지 기념일 모두 역사적으로 중요하지만, 현 정부가 70년의 군사동맹만 강조하고 있는 현실은 상당한 함의를 지닌다. 정전체제 70년 후에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그 전쟁을 끝내는 어떤 노력보다는 다시 전쟁 가능성을 앞에 두고 군비경쟁과 진영화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분단과 전쟁에 있어 누구의 책임이 더 큰 것인가를 떠나서 모두에게 불행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목표는 모든 희생을 불사하는 승리가 아니라, 자제와 타협을 통한 평화이다. 

# 윤석열 외교 1년과 한반도 위기의 고조: 정전협정 70주년의 한반도 현실

남기정 |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정전협정 70년을 맞이하는 2023년, 한반도는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대전환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채, 전쟁의 위기 앞에 다시 서게 되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 추진되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짜평화’로 규정한 데 따른 반동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 추진되었던 종전선언을 ‘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가짜평화’로 규정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모든 성과들을 부정했다. ‘협상을 통한 평화’를 부정하고 ‘힘에 의한 굴복’을 평화로 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징고이즘(jingoism, 맹목적 주전론)은 이미 대통령 선거전 기간에 외신 기자클럽 회견에서 “종전선언 반대”를 공식 표명한 데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종전선언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2007년 10.4남북공동선언과 2018년 4월의 판문점선언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 두 선언이 무효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기울었던 지난 정부의 노력을 다음 정부가 ‘가짜’로 비난할 수는 없다. 2023년 4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동서대 강연을 통해 판문점선언과 9.19남북군사합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그것은 윤 정부에서도 이 선언과 합의서가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판문점선언을 파기하라고 주장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 선언이 현실적으로는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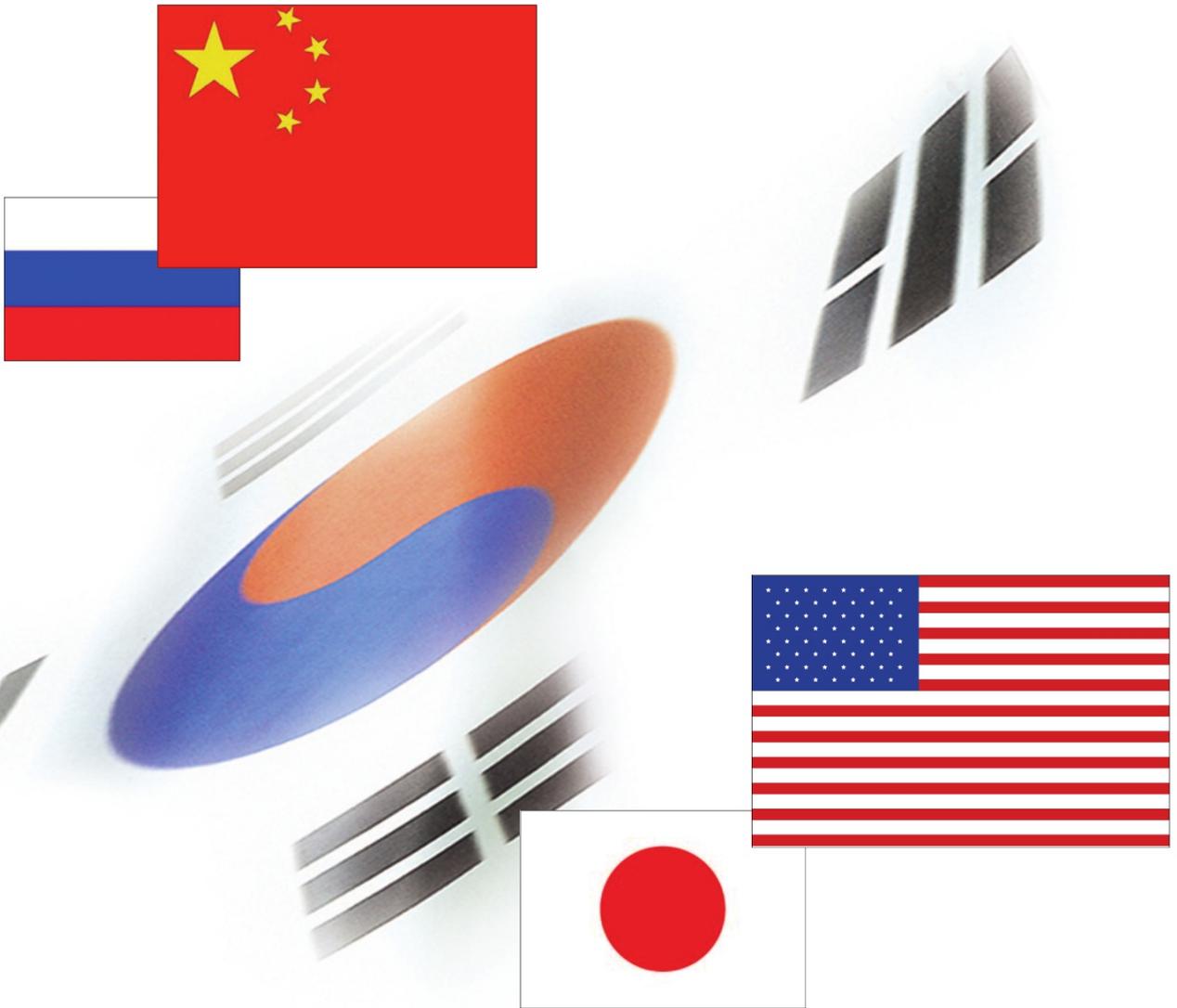
그럼에도 남북 사이의 합의들이 윤 정부 들어서 형해화 또는 사문화된 것 또한 현실이다. 이는 하노이 노딜 이후 문재인 정부와의 협상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 북한이 거친 행보를 보인 데 일차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전개되는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이 위기를 격화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 수위는 정전협정 위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방부 외교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국제법이 용인하는 자위권 행사 요건 가운데 비례성의 원칙은 무력행사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하여 전쟁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이다. 윤 대통령은 이 발언이 국제법의 허용 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거나 했던 것일까. 바로 얼마 전에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규칙기반 국제질서를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의 이중성이 드러난 대목이다.

그런 한편 민족에게 깊은 상처를 입힌 일본에겐 한없이 너그럽다. 대법원 판결에 입각한 피해자들의 당당한 배상 요구를 ‘과거에 집착하는 투정’으로 폄훼하고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가 하면, 미국에 대한 구애도 도가 지나치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 중인 기념사업이 150개에 이르

고 있고, 이와 관련한 행사가 연중 개최되고 있다. 그러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올인하고 있다.

윤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21일 서울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열고 한미동맹을 '포괄적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그로부터 꼬박 1년이 지난 2023년 같은 날 일본 히로시마(広島)에서 열린 G7을 무대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는 것은 우연 치곤 매우 상징적이다. 윤석열 정부 1년의 한국외교는, 윤 대통령 스스로 자부하듯이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에 올인하여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이미 실질적으로 전략동맹으로 강화되던 한미동맹을 가치동맹의 미명하에 무제한동맹으로 확대강화하고,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던 한일관계를 안보파트너십으로 재규정하여, 역사불문-협력강화의 1965년 체제로 복귀시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이를 위해 식민지배 책임 문제라는 돌덩이를 치우는 결단을 내렸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짜평화’로 규정하고 비난하는 윤 정부는 일본의 ‘선의’에 기대 ‘가짜화해’를 통해 ‘유사동맹’을 ‘진짜동맹’으로 탈바꿈시키려 하고 있다. 마침 일본은 ‘극동 1905년 체제’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지정학’을 준비해 놓고, 한국이 이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고 있다.

극동 1905년 체제(千々石泰明, 2022)의 핵심 주장은 두 가지다. 첫째,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자동맹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로 엮인 것이어서, 일체화한 미일-한미동맹 속에서 미일동맹이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역사적인 기원을 갖고 있어서 그 기본 유형이 1905년에 완성되었다는 것이 두 번째 주장이다. 즉 일본의 강력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국과 대만이 일본과 함께 하나의 진영을 이루어, 이것이 아시아에서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는 체제로 기능해 왔다는 것이다. 이 체제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완성되었다.

이후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이 안전보장 체제가 해체되어 동아시아의 국제질서가 유동화했고, 그 결과 한국전쟁이 발발했으나 이에 개입한 미국이 1905년 체제를 복구하여 전후 일본의 안전보장 체제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에 따르면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은 불가분의 양자동맹으로, 하나로 엮여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2023년은 윤석열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묻지마 한미일 동맹’ 하에서 ‘극동 1905년 체제’의 본질과 의미가 이제야 비로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일이 주도하고 윤 정부가 협력하여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한반도 ‘신냉전’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면에서 지구 수준의 국제질서는 완만한 삼분지계의 경합으로 전개되고 있다. 마치 1953년 한미동맹이 체결되고 한반도 정전체제가 성립하여 한국이 동북아시아 냉전의 전위에 몰려가 있는 동안 1955년 반동회의가 개최되어 미소 냉전 사이에서 비동맹운동이 개시되었던 것과 비슷하다. 다만 당시 비동맹운동을 주도한 국가들이 신흥대국으로서의 정치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력이 뒷받침되지 못해 국제정치 무대에서 거의 존재감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던 것에 비해, 이제는 삼분지계를 시도하는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발휘하는 존재감은 물론 그들의 네트워크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전위로 나서서 언제 될 ‘위험수당’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일방적 양보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국격에 어울리는 외교’의 미명하에 통 큰 양보로 식민지배 역사해석의 주도권을 일본에 넘긴 뒤, 독도와 교과서 문제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육일기 계양과 오염수 방류 문제에서는 일본의 대변인이 된 듯하다. 미국에게는 도청의 책임을 묻지도 못한다. 이 모두 위계적 분업구조가 드러내는 단면들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해 평화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정전체제가 ‘묻지마 한미일 동맹’ 속에서 전쟁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를 견제하고 저지하기 위해 한미일 평화시민세력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

## 장벽을 넘는 외교적 상상력

김승윤 | 노스웨스턴 대학교 인류학과 박사과정

베를린시의 상징인 곰 조각상과 철거된 베를린 장벽의 일부로 꾸며졌다. 건설과 해체로 냉전의 시작과 끝을 장식했다고 평가받는 베를린 장벽의 육중한 철근 콘크리트 조각이 이제 한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 놓여있다. 이 기묘한 배치의 함의는 무엇인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1년 소비에트 체제가 생명력을 다하자, 세상은 탈냉전(The Post Cold War)의 도래를 수용했다.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자유민주주의의 최종 승리로 인류 역사가 마무리되었다는 과감한 학설을 선포하여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국제 질서는 그의 이론이 말하는 ‘역사의 종언’을 실현하는 듯한 방향으로 변화했다. 대적할 자 없는 슈퍼파워 미국이 주도하는 일극 체제가 마련된 것이다. 자유무역, 작은 정부, 정보화 혁명에 따라 세계가 변모했고, 신자유주의 경제 논리가 정설로 굳어져 갔다.

이처럼 미국은 최소한의 정부를 부르짖었지만, 동시에 강한 국가를 지향했다. 그들의 희망은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를 상대로 벌인 걸프전쟁에서 실현되었다. 1990년에 시작하여 이듬해에 마무리된 전쟁은 미국계 최신 무기의 박람회였고, 국제 사회는 그런 미국의 압도적인 힘을 바라보며 냉전의 종결을 실감했을 것이다. 서부 황야를 지키는 보안관처럼, 미국은 적대적 동반자였던 소련이 사라진 세계 곳곳에 개입하며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를 열었다.

냉전은 그렇게 끝난 것일까? 9·11테러,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전쟁, 닷컴 버블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중국의 부상. 21세기 국제사회에 벌어진 굵직한 사건들을 구태여 다시 풀어쓰진 않으려 한다. 다만, 이러한 지정학적 사건들과 현재 세계가 마주한 변화를 숙고해 볼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신(新) 냉전(The New Cold War)은 정말 새로운 냉전일까? G2로 불리는 두 나라의 대립에 ‘새로운’ 냉전이라는 라벨을 붙일 때, 그 이름표 아래에 가려지는 것들은 무엇인가?

한반도 분단은 냉전 체제의 산물이고, 우리는 여전히 그 자장 안에 살고 있다. 치절했던 한국전쟁도, 한국의 숨 가쁜 발전과 북한의 숨 막히는 독재 체제도 모두 어느 정도 냉전 구조 안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가령, ‘한강의 기적’이라는 수사는 냉전 질서 속 미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성립 불가능했다. 미국이 1946년부터 약 30년간 한국에 제공한 원조와 차관은 같은 기간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제공한 액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이 생산한 상품은 미국 시장에서 우호적인 관세를 적용받았고, 반대로 미국은 한국에 자국 상품을 수입하라는 압력을 거의 행사하지 않았다.

이처럼 냉전은 한반도 분단과 한국의 경제발전 모두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에 따라 냉전의 사고방식이 끈질기게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특히 외교와 평화에 관한 접근법을 제한하는 듯하다. 미국을 마치



청계천 베를린 광장

운명공동체로 설정하고 오직 그들의 뒷모습만 바라보는 외교가 그 결과물이다. 이를테면, 오직 대미 외교에 집중하며 동맹 강화에만 열을 올리는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이 떠오른다. 일본과 어떻게든 관계를 개선하려는 자세도 한·미·일 삼각공조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대한 배려와 연관될 것이다. 20세기에는 이러한 짝사랑이 효과적이었을지도 모른다(솔직히 그때도 효과적이었는지 의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의 역량이 달라졌고, 국제 질서도 변했다.

주지하다시피 외교는 매우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다. 적대적 핵보유국과 국경을 맞댄 채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은 난제들과 늘 마주해야 하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당연히 미국의 억지력과 일본의 협조가 중요하다. 하지만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상, 유럽의 지지, 수많은 제

3세계 국가의 호응, 무엇보다 충부리를 겨누고 있는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냉전 시대의 낡은 해법, 즉 철통같은 한미동맹'만'으로 풀다간 답을 찾으려다 질문조차 잊어버릴지도 모른다.

'냉전 이후' 한반도 평화의 조건을 마련하려면 미국과 일본, 또는 소수 강대국에 편중된 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도전해 볼 만한 역량도 충분하다. 그러려면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여러 지역의 다양한 국가와 외교관계를 확장하고 협력을 약속해야 한다.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은 한국 외교의 주요 범위를 각각 아세안(ASEAN)과 독립국가연합(CIS)으로 확장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 외교에 갇힌 시야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정책으로 판단된다. 신남방정책을 폐기한 현 정부의 방향성이 더욱더 쉽게 느껴지는 이유다.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강철로 쌓아 올린 소비에트에 균열을 낸 것은 결국 시민의 상상력이었다. 장벽과 국경 너머의 세계에 대한 상상이 적어도 북미와 서유럽의 냉전을 종결시켰다. 여전히 냉전이 만들어 낸 유무형의 질서 속에 살고 있는 한국도 그러한 상상이 필요하다. 제한된 사유를 바탕으로 설계된 외교 정책은 한미동맹을 강화할지는 몰라도, 종전과 평화를 불러내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세계의 수많은 국가와 정치·외교·경제·문화적으로 더 촘촘하게 연결될 때, 한반도 평화의 당위성이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천번에 설치된 베를린 장벽 한 조각이 상기시키는 가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듯하다. 🇰🇷



고리2호기 영구정지 선포 기자회견

# 기후위기 최전선의 우리, 기후정의를 위해 함께 싸우자

강연주 | 부산에너지정의행동

## 새벽 6시 소아과 오픈런. 멘탈붕괴의 날들

이 글을 처음 청탁받은 날, 나는 19개월 된 아이와 함께 5일째 병원생활을 하고 있었다. 평소 잘 먹던 아이는 이름도 생소한 호흡기세포융합(RSV)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밥도 거부하고 열이 심할 때는 40도를 찍었다. 8일 만에 퇴원은 했지만 의사는 당분간 외출도 하지 말고 어린이집에도 보내지 말라고 했다. 코로나가 지나가니까 각종 바이러스가 어린이들을 덮쳤다. 하나가 떠나면 또 다른 것이 오고 돌고 도는 바이러스의 늪은 끝이 보이질 않았다. 입원해 있는 동안은 차라리 나았다. 소아과 외래진료를 받는 날은 정말 흔히 말하듯 멘탈이 탈탈 털리는 느낌이었다. 오전 8시 50분부터 접수를 하는 소아과는 새벽 6시부터 번호표를 뽑을 수 있었다. 번호표를 미리 뽑지 않고 접수 시간에 맞춰 가면 대기시간이 얼마나 될지 장담할 수 없었다. 남편이 새벽에 번호표를 뽑아오면 아이를 데리고 접수시간 전부터 대기했다. 특히 토요일이나 주말이 지난 월요일 소아과는 전쟁터였다. 열이 끊고 아파서 보채는 아이를 안고 대기하는 시간은 정말 피가 마르는 느낌이었다. 저출산이 문제라면서 정작 태어나고 자라느라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고 양육자는 양육자대로 힘들었다. 소아과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은 또 그들 나름의 고충이 있었다. 돈이 안 되는 산부인과나 소아과는 전공의도 미달이고 폐업에 난리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놓고 기르란 말인지 소아과 오픈런<sup>1)</sup>을 해야 할 때마다 속에서 열이 올랐다.

## 문제는 기후위기불평등이야

기후위기와 관련한 글을 청탁받고 이렇게 길게 아이의 투병생활과 소아과 이야기를 구구절절 늘어놓은 이유는 이게 다 기후위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견잡을 수 없이 확산

될 때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바이러스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첫 번째 이유는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의 활동성에 기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줄어들어 따라 야생동물과 인간이 접촉하는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수공통감염병’이 증가하고 철새의 이동경로 변화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변화가 다양한 감염의 경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후위기로 인한 각종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홍수, 가뭄 등이 발생하고 결국 물이 오염돼 세균과 바이러스를 창궐하게 하는 수인성(Water-borne) 감염병의 확산될 것이라는 예측이다.<sup>2)</sup> 물론 기후위기가 바이러스의 확산문제만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기후위기는 다양한 현상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한 위기’로 다가왔다. 평생을 일궈온 땅과 농작물을 당장 잃을 위기에 놓인 농부, 한파와 폭염 속에서 야외노동으로 죽어가는 노동자들, 정립되지 못한 전환 앞에 일자리를 잃거나 삶을 빼앗기게

될 사람들, 반지하에서 폭염과 폭우로 생존을 위협받는 사람들, 그리고 얼마나 더 멸종하게 될지 모를 비인간 동식물들은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존재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산업화 이후 현재까지 누적 탄소배출량을 비교하면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국가들이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개도국 국가들은 탄소배출을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관계뿐만 아니다. 2019년 전 세계 최상위 상위 1%(약 7천만 명)는 연간 1인당 평균 110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세계 탄소배출량의 17%를 차지했다. 상위 10%(7억 7100만 명)는 1인당 연평균 31톤의 탄소를 배출했고, 이는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48%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50%(38억 명)는 연간 1인당 평균 1.6톤의 탄소만 배출했다. 이들이 배출한 양은 세계 탄소배출량의 12%였다.<sup>3)</sup> 기후위기 최전선의 당사자들에게는 어쩌면 ‘탄소중립’, ‘RE100’, ‘ESC’ 이런 단어가 너무 고상한 언어일지 모른다. 부자나라의 부자들이 만든 기후재난이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더 가혹하게 했다. 산업화 이후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린 기성세대들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미래를 갉아 먹고 있었다. 생산노동과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전반의 권력을 가진 남성이 돌봄과 재생산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고 여성들과 여성-자연 간의 관계를 착취했다. 불평등이 기후위기를 낳았고, 기후위기가 불평등을 공고히 했다. 그야말로 기후정의가 필요한 순간이다.

#### 기후정의를 위해 아이와 함께한 첫 싸움. 아기기후소송

올해로 부산에 이주한 지 8년차다. 탈핵운동을 하다가 인근에 핵발전소 10기가 존재하는 부산에 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다. 탈핵운동을 해오는 동안 핵발전소는 지진, 태풍으



▲ 4 · 14 기후정의파업 현장  
 ◀ 4 · 14 기후정의파업에서 발언 중인 강연주 활동가

로 멈추고 고장 나기를 반복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원자력이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현 정부와 핵산업계, 그 이해관계자들의 주장과 달리, 이렇다각 각종 이상기후 현상들로 핵발전소가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었다. 핵발전소의 위험과 기후위기의 위험을 동시에 겪고 있는 최전선 당사자로서 나는 2022년 6월, 당시 7개월차였던 아이와 함께 아기기후소송에 참여했다. 기후정의를 위해 아이와 함께한 첫 싸움이였다. 아기기후소송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한다는 현 정부 탄소중립기본법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불충분하며, 미래세대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 소송에 참여한 이유는 기후위기의 문제가 나와 아이 모두가 겪는 문제이고, 우리가 함께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이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같은 호혜적인 기후운동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기후운동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7개월의 아이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는 없었으니 소송참여는 어쩌면 나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을 함께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나갈 우리가 ‘지금 당장’ 기후위기의 책임을 묻고, 행동하는 것 또한 필요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당사자들이 이 기후소송이 진행 중이고 승리의 소식을 듣기도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아기기후소송에 묵묵부답이다.<sup>4)</sup>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노이은

때로 무엇을 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 좌절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했다. 또 어떤 때는 이제 그만 외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그만하거나, 더 뜨겁게 싸우거나 사이를 오갔다. 결론은 늘 더 싸우는 사람이 되었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 자꾸만 생각나는 글이 있다.

“고대 문화는 동굴벽화와 인상적인 건축물을 남겼지만, 우리 문화는 바로 이 유독한 핵폐기물을 길이길이 남길 것이다. 먼 훗날 사람들이 우리의 원자력(핵발전)– 화석연료의 시대를, 후손에게 어리석은 짓과 무책임한 짓을 한 시대로 기록하리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sup>5)</sup>

무엇도 남기지 않는 것이 지구에 가장 해가 되지 않을 테지만, 살아가니까 무엇이라도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다만 무엇이라도 남기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유독한 핵폐기물도, 방사능 오염수도,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의 산물들이 아니길 바란다.(안타깝게도 이미 발생되어 버린 것들이지만) 그래서 오늘도 탈핵과 기후정의를 위해 싸우려(기자회견 하러) 나간다. 🇷🇺

각주

- 1) 원래 오픈런이라는 단어는 열다(open)와 달리다(run)의 합성어로 희소성이 높은 명품이나 한정판 상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 매장 영업시간 전부터 줄을 서고 개장하자마자 달려가듯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신조어다. 최근 ‘소아과 오픈런’은 포털사이트에서 연관검색이 될 정도로 진료를 위해 오픈런까지 해야 하는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어다. 이와 관련해 너무도 공감 가는 글이 있어 공유한다. 오마이뉴스, <직장인이자 엄마. 아이 감기 한 달, 삶이 흔들립니다.>, 2023.5.16. <https://omn.kr/23w32>
- 2) 그린피스, <건강과대안 이상운 연구원 인터뷰: 기후위기와 바이러스: 기후위기는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2020.3.25.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12602/blog-ce-climate-virus/>
- 3) 한겨레, <기후위기 책임 가장 큰 나라는? 미국-중국 ‘네 탓’, 한국 18위>, 2022.11.6.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65998.html>
- 4) 한겨레21, <아기 기후소송에 정부 “할 만큼 했잖아”>, 2023.5월호, <https://h21.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3770.html>
- 5) 『폐쇄하라』, 컴팩트 지음, 김하락 옮김, 한얼미디어, 2012.

# 시민의 기억 저장소

## - 민주공원 부속건물(기록관) 건립 추진 경과

박지원 | 민주공원 기록관리



민주화운동 역사를 기리고 인류 보편의 가치인 민주주의를 표상하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1999년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 20주년 기념일에 맞춰 민주공원을 개관했습니다. 민주공원 내에 있는 민주항쟁기념관은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공연장, 사료실 등이 있으며 기념사업, 교육사업, 학술사업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계승·발전하는 민주주의, 민주시민교육의 산 교육장입니다.

부산은 부마민주항쟁, 6월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민주화의 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료실을 포함한 수장고 3곳에는 이러한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와 민중미술 작품들이 다수 보관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신문, 소식지, 선언문, 결의문, 사진 등 높은 가치를 지닌 사료를 보존하고 있으며, 특히 전국에서 손꼽히도록 많은 민중미술 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치 높은 사료를 전문적으로 보존할 공간의 부재로 훼손, 황변화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료 보존 공간의 필요성은 1999년 민주공원 건립 이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2006년 지방교부세(특별) 40억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건립이 무산되었고, 2012년에는 '부산민주공원 건축물 개선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해서 사료를 전문적으로 관리·보존할 공간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2019년 부속건물 건립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언론 대응을 통해 국비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민주공원 부속건물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시작된 부속건물 건립이 어언 2년이 지났습니다. 민주공원 건립 이래, 소장 사료 및 미술품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존 공간이 20년 만에 실현된 것입니다.

사업비 158억 원을 들여 부산 서구 중앙도서관과 광복기념관 사이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부속건물이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초의 계획과 달라진 부분도 생겼습니다. 인건비 및 자재비 폭등으로 인해 연면적 2,575㎡이었던 건물 규모가 2,191㎡로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 보존서고, 개방형 수장고, 사료전시실 등 주요 시설의 크기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민주화운동 사료를 보존·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주어진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 드디어 부속건물의 조감도가 공개되었습니다.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의 상징인 민주의 햇불에 상응하는 이미지를 담은 조형물을 건물 상단에 설치해, 멀리서도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이로써 부속건물이 민주항쟁기념관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이 공간을 민주주의 전당으로 만든다는 목적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최대한 산림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부지에 있던 수목을 옮겨 심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매일 매일 같은 위치에서 사진을 찍어 기록하며 '아 정말로 공사가 시작되었구나'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목 이식작업이 끝난 지난 4월 14일,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임직원과 관계 기관장, 그리고 건설사 임직원의 기원을 담아 착공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큰 사고 없이 무탈하게 부속건물이 건립되길 바라봅니다.

부속건물의 외형도 중요하지만, 소장 기록물을 관리·보존하는 공간을 건립한다는 취지에 맞게 전수조사 및 사

료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줄곧 통합되지 못했던 전체 사료 목록을 통합한 것에 큰 의의가 있으며, 사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이 목록을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아카이브를 통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사료를 검색하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소장 사료를 적극 활용하여 더 많은 이야기와 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기존의 민주항쟁기념관과 부속건물의 기능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기본운영 계획 수립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주공원과 유사한 단체의 사례조사를 실시했으며, 부속건물의 목적에 들어맞는 유관 사례의 면적 및 장서 기준을 적용하여 부속건물의 조직구조를 5개 팀으로 구성하며, 기존 민주공원(민주항쟁기념관) 직원 22명에 부속건물 인력 18명을 제안했습니다. 이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민주공원 내부에 인력조직 TF를 구성해 부속건물에 필수적인 인력을 논의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2024년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기관장과 실무자를 포함한 내부 준비단 회의가 39차 진행했으며, 올해부터는 매달 둘째주와 넷째주 월 2회 실시하기로 정례화했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다양한 주제의 학술대회와 초청 특강을 개최하였으며, 사학과 및 기록관리학 교수, 실무자를 바탕으로 한 자문회의를 꾸려 전문성을 피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을 느껴 작년 하반기부터 유관단체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부속건물 건립 소식을 매달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에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전시설계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전시설계 업체, 부산시청, 민주공원 실무 회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사료의 전문적인 보존 환경을 구축한다는 본 취지와 함께 지역 시민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 12월, 부속건물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부속건물 완공이 성큼 다가온 시점에서 아직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새로운 건물이 생김에 따른 예산 문제도 있을 것이며, 기존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신규 인력 채용도 고민해야 합니다. 민주공원 부속건물이 시민의 기억을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기억 저장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제63주년 4·19민주혁명 희생자 추모 위령제

제63주년 4·19민주혁명 희생자 추모 위령제가 4월 18일(화) 오후 2시 4·19혁명 희생자 영령봉안소에서 열렸습니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4·19혁명희생자유족회가 함께 주관하고 부산지방보훈청이 주최했습니다. 김종기 부산민주공원 관장, 김용성 4·19민주혁명회 부산광역시지부장, 전중호 부산지방보훈청장, 배재한 국제신문사 사장, 장승희 부산시 총무과장, 이재동 4·19혁명희생자유족회 부산광역시지부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자유, 민주, 정의를 위해 순교하게 희생한 4·19혁명 희생자 영령에 대한 경례와 묵념을 올리고 추모위령 제문을 낭독, 헌주와 재배, 헌화가 이어졌습니다. 부산시무형문화재 제10호 동래고무 이수자인 김경미 선생이 4·19혁명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진혼무를 쳤습니다.



##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

4·19혁명 63주년을 맞아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4월 19일 오전 10시 4·19광장 4·19민주혁명 희생자 위령탑 앞에서 열렸습니다.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을 비롯한 참석자가 봄비가 내리는 속에 4·19혁명 유공자의 순교한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4·19혁명 희생 영령에 대한 묵념, 헌화와 분향에 이어 4·19혁명

유공자 정부 포상이 있었습니다. 이어 추모헌시 낭송과 부산시립합창단의 추모 합창으로 기념식을 마무리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4·19혁명의 자유·민주·정의의 혁명 정신이 최초로 태동한 민주주의의 시민 혁명으로, 부산시민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과 순교한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든든한 초석이 되었다”라며 “자유·민주·정의의 4·19혁명의 순교한 희생정신을 계승, 발전하여 부산의 희망찬 내일을 열어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황보영국 열사 유족 유품 기증

황보영국 열사의 유족이 5월 16일(화) 민주공원을 방문해 열사의 유품을 기증해주셨습니다. 유족은 열사가 고등학교 당시 현대중공업에서 실습을 하던 중 회사로부터 생일선물로 받은 시계를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기증해주셨습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36년이라는 시간을 가죽 곁에서 지켜준 시계라며 기증 전날 열사의 어머니께서는 하루 종일 시계를 품고 계셨다고 합니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황보영국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민주세상을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황보영국 열사(1961.9.6. ~ 1987.5.25.)는 5·18민주화운동 7주년을 맞아 부산에서 전두환의 호헌조치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던 1987년 5월 17일, 부산상업고등학교 앞에서 “광주학살 책임 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호헌책동 저지하고 민주헌법 쟁취하자”를 외치며 산화해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온몸에 붕대를 감고 숨을 거두면서도 ‘독재타도’를 신음처럼 외치며 5월 25일 사망하였습니다. 열사의 죽음은 5·18민주화운동과 6월민주항쟁을 잇는 순교한 희생이었습니다.

## 회원 · 시민 소통프로그램: 민주공원에서 '봄'

파란 하늘과 기분 좋은 바람이 불었던 5월 20일 토요일(사)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는 푸릇푸릇한 나무와 꽃내음이 가득한 민주공원에서 열린 <회원 · 시민 소통프로그램: 민주공원에서 '봄'>을 통해 회원들과 시민들을 만나 드로잉피크닉을 즐겼습니다. 공원 해설사와 함께 민중항쟁도 그림도 살펴보고, 꼬불꼬불한 달팽이 길을 올라 새롭게 단장한 옥상 탐방까지! 민주공원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오후에는 민주공원 반나절풍류 프로그램으로 사랑하는 가족, 친구와 함께 민주공원에 소장되어있는 작품을 드로잉하며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더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우리 또 만나요!



## 김형률 한국원목2세환우회 초대회장 서거 18주기

5월 27일(토) 김형률 한국원목2세환우회 초대회장님 서거 18주기를 맞아 그를 기리는 동지들이 부산민주공원의 김형률 추모 비석 앞에서 추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전쟁의 기운에 휩싸이고 핵방사능 오염수의 방출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그분의 '공생애'가 다시금 새롭게 다가옵니다.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외쳤던 그의 말이 더욱 생각납니다. 박광주 교수님 내외, 정귀순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대표, 김종기 민주공원 관장님 내외와 김호민 활동가, 정지숙 이주민과함께 상임이사, 김옥숙 작가, 권병재 도토리 숲 출판사 대표, 그리고 상록수를 열창해주신 조석현 선생님이 함께했습니다.

## 오월에서유월로 청년 서포터즈 활동

부산민주주의행동 '오월에서유월로 청년 서포터즈'가 3개월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5·18민중항쟁과 6월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해 민주, 평등, 평화, 자주통일 운동을 함께 해나갈 부산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3월 17일(금)부터 4월 7일(금)까지 모집하여 총 16명의 오월에서 유월로 청년 서포터즈가 모였습니다. 4월 22일(토)과 23일(일) 양일간 광우 일원으로 5·18민중항쟁 현장답사도 다녀오고 부산지역 민주항쟁 현장답사, 강의도 들었습니다. 5월 18일(목) 5·18민중항쟁 43주년 기념식에서는 5·18민중항쟁 유족, 10,290세대원참사 유족과 함께 촛불을 들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6월 10일(토) 6월민주항쟁 36주년 기념식에 이어 열린 서면까지의 행진 퍼포먼스에서 서포터즈들은 1987년 6월 당시의 모습으로 분해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쳤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홍보 활동을 통해서도 민주주의 정신을 이어나가고 널리 퍼뜨려 온 오월에서유월로 청년 서포터즈를 늘 응원해주세요!



민주시민의 특별한 기부

당신이 민주주의입니다.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에 함께 걸어주세요!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민주화운동을 기념·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기념사업, 민주시민교육, 대중문화예술, 기획전시, 체험활동사업에 쓰입니다. 후원회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홈페이지([www.ohminju.or.kr](http://www.ohminju.or.kr)) 또는 민주공원 홈페이지([demopark.or.kr](http://demopark.or.kr))에서 하실 수 있으며 QR코드를 스캔하시어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는 회원사업 담당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 전화 : 051-790-7473
- ◆ 이메일 : [dohee@demopark.or.kr](mailto:dohee@demopark.or.kr)

〈특별한 기부, 특별한 혜택〉

1. 회원 감사증서 발송
2. 가정용 반려나무 세트 택배 발송
3. 회원의 이름으로 숲 조성을 위한 활동 진행
4. 행사 및 교육 활동 우선 알림과 혜택 ▶ 〈민주달력〉, 뉴스레터 〈마루누리〉 발송
5. 소식지 무료 발송(연 4회)
6. 부산문화회관 전시와 공연 특별 할인가 혜택
7. 회원 간 교류 활동 ▶ 역사기행, 체험프로그램 등
8.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 하계 국가근로장학생 연구소 업무 지원

민주주의사회연구소는 2023년 7월 3일부터 국가근로장학생의 도움을 받아 우리 연구소가 생산한 기록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방학 동안 기념사업회와 민주공원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생산한 기록물 7,325건의 색인목록을 작성했는데,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는 우리 연구소가 생산한 문서, 자료집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목록화 작업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홈페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 문의 [www.narak.kr](http://www.narak.kr) | ☎ 051) 463-2240

## 2023년 북큐레이터 양성과정 진행

나락한알이 밀양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업하여 ‘북큐레이터 양성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책과 사람을 연결하는 북큐레이터!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 2023년 동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진행

2019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동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올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구의 다양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직접 해결방법을 찾아 의제로 만들어보는 활동인데요, 올해에는 동구 어린이 청소년의 ‘이동권’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의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펼쳐하고 있는 나락한알,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감사합니다!





## 2023 부산민주공원 체험학습 프로그램

프로그램 희망일의 30일 전~5일 전 민주공원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온라인 예약이 가능합니다.

### 1. 민주공원 스토리투어

공원해설사와 함께 민주공원의 다양한 공간을 둘러보는 역사문화탐방

### 2. 민주항쟁기념관 전시해설

민주항쟁기념관 상설전시실 늘펼쳐보임방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전시해설 프로그램

### 3. 민주공원 숲체험

시니어숲해설사와 함께 민주공원과 인근 숲을 거닐어 보고, 다양한 나무와 열매를 살펴보는 숲체험



## 민주공원 반나절풍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글과 그림을 남기는 것,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운치를 즐기는 것, 우리는 그것을 풍류라 합니다. 한나절의 반이 되는 시간 반나절, 민주공원에서 풍류를 즐기며 자연과 함께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소장작품 드로잉피크닉세트 대어

◆ 운영기간 : 6월 13일(토) ~ 11월 12일(일)

◆ 신청방법 : 30일 ~ 5일 전까지 부산민주공원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신청

※ 2023년 민주공원 반나절풍류는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소장 중인 남궁산 작가의 작품 '진달래 산천'과 '꽃과 소녀', 이철수 작가의 작품 '윤희' 컬러링페이퍼와 함께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민주홍신소 #2 모든 역사에는 시민이 있었다

민주홍신소에 들어온 두 번째 의뢰!!! 부산민주공원 전담 탐정MJ가 찾아야 하는 민주화 운동은 무엇일까요? 민주공원 유튜브 채널에서 의뢰인이 남긴 사진과 자료를 보고 역사의 흔적을 함께 찾아보세요!

◆ 민주홍신소 :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와 관련된 의뢰를 바탕으로 관련된 흔적을 조사하여 알려주는 부산민주공원 홍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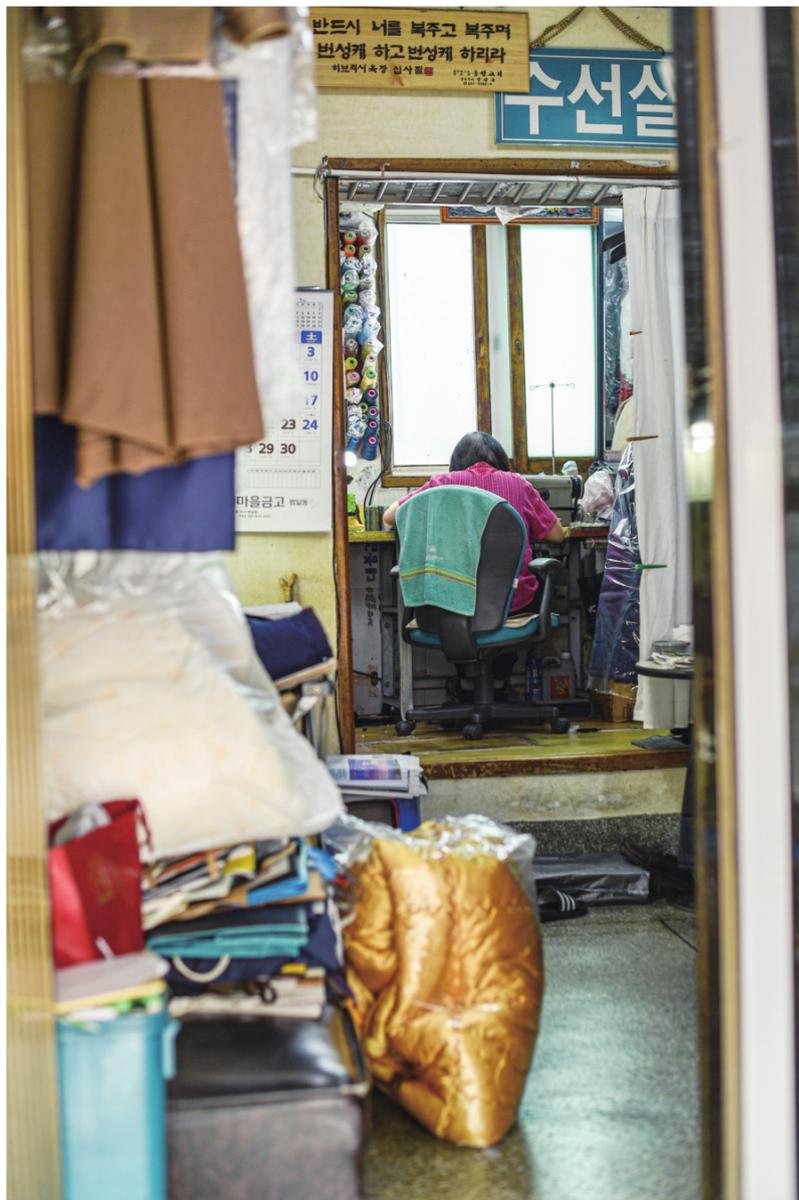
◆ 탐정MJ : 더 나은 민주시민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활동하는 초보 탐정

6·25를 지났는가

싶었는데 벌써 초복이다. 나라 안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논쟁, 노조탄압과 일상화된 압수수색 등으로 매일 열대야만큼 뜨겁다. 산을 넘으면 또 더 높은 산이 나타나고 높은 산은 깊은 계곡을, 깊은 계곡은 깊은 물을 데려온다 했던가.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인간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와 양심,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의명분이 있거늘 어찌 이토록 국민들을 답답하게 하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심장을 요동치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오로지 정쟁만 남았다. 천박한 자본주의는 계층 간 격차를 더 벌리고 노동자의 삶을 잊어버렸다. 먼저 돌봐야 하는 것은 민생이고 국민들 감정이다. 오늘도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

다고 한다. 북한의 제스처를 한미 위협의 액션으로만 읽는 보도에도 지쳤다. 궁극의 문제는 해결할 의지가 없고 그저 넘쳐나는 새로운 가짜 뉴스가 머리 위를 둘러 마치 숨이불같이 두꺼워진다. 어지러운 세월 속 평화와 통일은 빠른 속도로 잊혀지고 점점 더 멀어져만 간다. 매일 좋은 일이 생길 수는 없겠지만 연일 머리가 아프고 피로도 높은 일상이 계속되다 보니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국민들이 나라 걱정에 밤잠을 설친다. 자다가 깨어 한숨 쉬다 문득 허버트 조지웰스의 “우리가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전쟁이 우리를 끝낼 것이다”라는 말이 떠오른다. 전쟁은 6·25로 휴전된 것이 아니다. 지금도 이데올로기, 분단, 냉전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좌우로 흘러 다닌다. 이런 혼란을 좋아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평화가 멀어지면 마음속 전쟁은 가난처럼 슬며시 다가온다.

글·사진\_쁘리아 김



민중미술 2023



6월민주항쟁 36주년 기념 전시

SECTION 01

민중미술가열전 VII 남궁산

민중미술의 정체성을 가능하는 '민중미술가열전' 남궁산 작가 특별전

2023. 6. 10.(토) - 7. 23.(일) 10:00-17:00

민주공원 기획전시실 | 월요일 휴관

- 남궁산 작가와 함께 판화 체험 : 6. 10(토) 15:00
- 큐레이터 전시해설 프로그램 : 매주 토요일 14:00, 16:00

SECTION 02

민중미술의 현장 / 식민지구 2023 - 먹힐 듯 말 듯

지속불가능 자본주의, 식인 자본주의를 통과하는 지구 예술가들의 발화

2023. 8. 5.(토) - 8. 27.(일) 10:00-17:00

민주공원 기획전시실 | 월요일 휴관

- 큐레이터 전시해설 프로그램 : 매주 토요일 14:00, 16:00